

농진청, '밀 진화 수수께끼' 해독에 한몫

밀의 조상 '염소풀' 범유전체서 밀 글루텐 등 유전체 등 분석에 기여

농촌진흥청(청장 김재환)이 참여한 가운데 국제 협력으로 추진한 밀 조상 격 식물 '염소풀'의 범유전체 연구 결과가 지난날 14일 국제 학술지 네이처(Nature)에 실려 관심을 끌고 있다.

염소풀 범유전체 국제 협력은 기후 변화와 병해충에 대응해 수확량이 늘어난 밀을 육성하고자 2017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모두 17개 국가 연구진이 참여해 1~2단계로 나눠 연구를 진행했다.

농촌진흥청은 단백질 분석 전문성을 인정받아 미국 농업연구청 서부지역 연구센터(ARS)와 함께 2단계 연구에



원의 유전체를 진화적으로 분석, 오늘

참여했다. 이를 통해 밀가루 품질에 필수적인 글루텐 유전자들을 발굴하고 신규 명명했으며, 단백질의 화학적 분석 연구도 수행했다. 이번 2단계 연구에서 염소풀 600자

날 밀에 있는 디(D)염색체가 남부 카스피해에 속한 집단(L2-E1과 L2-E2 그룹)의 염소풀에서 유래했음을 확인했다.

또한 600자인 중 46자원을 선택해 고품질 참조 범유전체를 구축하고, 유전자-전장 연관성 분석연구로 밀 생산에 큰 피해를 주는 녹병에 새로운 저항성 유전자(STA1662, Lr39)를 찾아내는 성과도 거뒀다.

염소풀은 녹병, 붉은곰팡이병, 흰가루병, 밀혹파리, 진딧물 등 오늘날 중요한 병해충 저항성 유전자와 고온, 가뭄, 염분 등 환경 스트레스에 강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 최근 합성밀의

형태로 밀 육종에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밀은 벼, 옥수수와 함께 세계 식량 대부분을 차지하는 3대 작물 중 하나다. 벼, 옥수수는 염색체를 한 쌍(2n)씩 가지고 있어 일찍이 유전체 분석이 끝났다.

밀은 염색체를 세 쌍 갖는 육배체(6n)라 유전체 분석이 매우 복잡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는 게 어려웠으나 최근에 유전체 분석을 완료했다.

농촌진흥청 김남정 농업생명자원부장은 "이번 연구에서 얻은 정보들은 전 세계가 원하고 있는 병충해나 재해에 강하면서 생산성과 품질이 좋은 새로운 밀 품종 개발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옥기기자



전북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육성사업에 선정된 돌음기업 포아워스킨이 두바이 럭셔리 스트리트 시티워크(City Walk)에 단독매장 'TUPS'를 오픈했다

포아워스킨, 중동시장 진출

에스테틱 브랜드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최초 입성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이하 경진원, 원장 윤여봉)은 전북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육성사업에 선정된 돌음기업 포아워스킨이 두바이 럭셔리 스트리트 시티워크(City Walk)에 단독매장 'TUPS'를 오픈했다고 밝혔다.

돌음기업 육성사업은 전북민의 차별화된 기업육성 프로그램인 성장사다리 육성사업의 일환이다. 이 지원사업을 통해 기업은 3년간 기술과 제품 고도화를 창출하여 중장기적인 단계별 성장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포아워스킨은 2024년 돌음기업 선정기업으로 높은 경쟁률을 뚫고 전북 성장사다리 기업에 선정되어, 마케팅 지원사업, R&D료 제작 지원, ESG지원사업을 통해 중동시장 진출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특히 중동 지역에서 K-Beauty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철저한 중동 시장 분석을 통해 기후에 적합한 보습 및 안티에이징 기능

을 갖춘 기초화장품을 개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현지 매장 '탑스 스킨라운지' 두바이점을 오픈하여 코스메틱과 에스테틱 서비스를 동시에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매장 오픈은 중동의 주요 거점이자 글로벌 랜드마크인 두바이에 고객 접점을 강화함으로써, 중동 시장 확장에 있어 브랜드 경쟁력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K-Beauty의 우수성을 알리고, 현지 소비자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중동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하여 (주)포아워스킨 수상미 대표는 "두바이(UAE)는 중동·아프리카 및 남아시아 인력과 자원의 물류 허브이자 아시아와 아프리카, 유럽을 잇는 지리적 요충지인 만큼 두바이를 거점으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여 전세계에 건강한 피부가 주는 다양하고 긍정적인 변화들을 함께 만들어가고자 한다"며 포부를 밝혔다. /김옥기기자

전북은행, 2024년 신입행원 채용 실시

직무능력 중심 역량검사·블라인드 채용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백종일)이 2024년 신입행원을 공개 채용한다고 19일 밝혔다.

모집 분야는 금융일반 분야로 지역 인재와 일반인재로 구분해 모집하며, 지역 내 우수인재 확보 등을 위해 매해 채용인원의 70~80%를 지역 인재로 채용하고 있는 전북은행은 올해도 80% 이상을 지역인재로 모집할 방침

이다. 지원자의 직무능력을 중점적으로 평가하는 블라인드 채용 방식으로 진행하는 이번 신입행원 채용은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시역량검사와 입사지원서 포괄검사를 실시한다.

전형 일정은 19일 전북은행 채용 전용 홈페이지를 통한 원서접수를 시작으로 서류전형, 온라인 필기전형, 1~2

차 면접전형 등을 거쳐 11월 초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전북은행은 지난달 21~22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2024 금융권 공동 채용박람회'에 참여해 금융권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들을 직접 만나 채용정보 안내 및 상담을 진행한 바 있다.

자세한 모집 요강 및 안내는 전북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오만호기자

한전 정읍지사, 민주 윤준병 의원과 전통시장 찾아 명절맞이 이웃사랑 나눔

한전 정읍지사(지사장 설일호)는 최근 추석 명절을 맞아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과 함께 정읍시 관내 취약계층 및 소외된 이웃들에게 '이웃사랑 나눔'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사회공헌활동은 전통시장 활성화와 지역 내 취약계층 지원을 목표로 계획한 사회공헌활동으로, 정읍시 관내 전통시장에서 구매한 지역농산물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온누리상품권을 정읍지역 복지시설에 지원하는 형태로 이루어졌으며, 재원은 한전 정읍지사 직원들의 자발적 급여 기부로 조성되는 러브랜드 기금을 통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활동에는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실에서도 동참해 지역사회의 취약계층 등 소외된 이웃들이 풍요로운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따뜻한 마음을 함께 전했다.



한전 정읍지사(지사장 설일호)는 최근 추석 명절을 맞아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과 함께 정읍시 관내 취약계층 및 소외된 이웃들에게 '이웃사랑 나눔'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

설일호 정읍지사는 "앞으로도 한전 정읍지사는 건강한 지역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어려움을 겪는 지

역사회 취약계층을 돌아보고 맞춤형 지원을 변함없이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김옥기 기자

전개공,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인증' 취득

전북개발공사(사장 최정호)는 전북특별자치도 출자·출연기관 중 최초로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 37001) 인증을 취득했다고 최근 발표했다.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 37001)은 ISO(국제표준화기구)가 제정한 표준 규격으로, 조직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부패리스크를 사전에 식별해 통제 및 관리하기 위한 인증 체계이다.

공사는 그간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인증을 위해 부서별 부패방지 준수 책임자 지정 및 부패방지 교육을 통해 내부 심사원을 양성하였으며, 부패리스크 평가 및 리스크 관리방안 등에 대

한 검토를 거쳐 운영 지침과 매뉴얼을 제정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인증 심사에서는 공사의 부패방지시스템이 ISO가 요구하는 인증규격에 적합한 물론, 구성원들의 위험성 평가 참여도가 높고 기관장 주도하에 다양한 반부패·청렴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 받았다.

전북개발공사 청렴감사실 관계자는 "이번 인증심사 과정에서 전직원의 관심과 참여로 우리 공사의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을 보다 체계화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